

農藥의상자금 5 백억원 지원

농민 부담 輕減위해 영농자금과 連繫

□ 농약계정 적자누증 深化 □

농수산부는 올해부터 농민의 영농비부담을 輕減시키는 한편 지난해 흉작으로 인한 농민의 구매력감퇴를 고려하여 필요한 농가에 가능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자금 500억원을 농약 현물구매자금으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수도용 농약중 총공급량의 85%는 영농자금과 연계하여 의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도용농약중 공동방제용 농약에 한하여 무이자 의상공급(총판매액의 75%)을 해왔는데 공동방제단 조직활용이 어려운 일부지역(산간부)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동방제단이 무이자 의상공급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 농민의 의사참만 주장하는등 원성을 초래했었다.

한편 무이자 의상공급으로 인한 농약계정 적자는 계속 누증돼 80년 말 현재 56억원에 이르고 있다.

논에 쌓아둔 벼짚 서둘러 깔아 주자

농수산부는 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월동병해충원(越冬病害虫源)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쌓아둔 벼짚을 속히 논바닥에 깔아줄 것을 당부했다.

농수산부 담당자는 땅심이 악화되면 감산(減産)은 물론 작물이 병해충에 견디는 힘을 떨어뜨리므로 각종 병해충의 근원이 되는 벼짚 특히 병에 걸렸던 짚이나 복더기는 논에 깔아 병해충(도열병, 흰빛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이화명충)이 얼어죽게 하고 갈아엎음으로서 땅심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열병균은 영하 10도에서 동결하면 1개월만에 죽어버리므로 겨울동안 벼짚을 2~3등분하여 논바닥에 고루 편다음(10a당 4백~5백kg) 봄갈 이후 10일이상 물을 대어주면 1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